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9권 제3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23.19.03.019 2023, Vol. 19, No. 3, pp. 19-39

외국인 유학생의 보육실습 경험 분석: 어려움과 가치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Child Care Practicum Experience of Foreign Students: Exploring Challenges and Benefits

강정원[1] 국소영[2] 박명금[3]

Jeongwon Kang[1] Soyoung Kook[2] Myungeum Park[3]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foreign students in childcare practicum, with a specific focus on identifying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ed and the values they derived from their practicum experiences. The aim was to gain insight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practicum support for these students.

Methods: A total of 6 foreign student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this study using snowball sampling. The data collection period spanned from May 2021 to March 2023, during which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Results: Foreign students faced challenges in securing practicum placements prior to the start of their program. Communication difficulties necessitated the use of interpreters to interact with children. Additionally, documenting information in a language other than their mother tongue posed a challenge. Consequently, there was a need for tailored training support to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foreign students in childcare practicum.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students reported rewarding and valuable experiences during their practicum. These experiences included discovering the teaching identity in Korea, learning about desirable practices in the field, recognizing and addressing personal shortcomings, and developing a sense of voc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fant education in their home countries.

Conclusion/Implications: If we actively listen to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for the specific needs of foreign students in their childcare practicum, they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excellent childcare teachers who can foster a harmonious and inclusive environment within our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foreign student, childcare practicum,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multicultural society

[1] **제1저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2] **교신저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외래교수
(e-mail : soy4769@naver.com)

[3] **공동저자**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I. 서 론

한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 해결 방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기본통계)는 2004년 16,832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40.4%, 베트남 22.7%, 우즈베키스탄 5.2% 등 아시아 국가 학생이 전체의 88.3%이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교육부는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이 30% 이상이며, 유학 후 진로·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하였다(교육부, 2023. 4. 14).

2022년 4월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제적 이동성이 약화 된 상황에서도 한류와 한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유학생은 증가추세이다. 그중에서도 보육관련학과인 유아교육과에 225명, 가족·사회·복지 등 사회계열에 1,425명으로 총 1,650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그러나 실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현재 공식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학생들의 개별적인 유학 동기는 차이가 있겠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국으로 돌아가 영유아교육계에서 일할 수 있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유아교사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세계 곳곳의 영유아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유학생들도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충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양질의 보육실습은 학습자의 권리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한국이 다문화사회임을 고려한 정책적 차원에서 보육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이다. 그러나 영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이들의 학업 및 취업 지원 관련된 국내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내에 소개된 유학생 경험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학업, 특히 언어 습득의 어려움, 교육체계 적응, 학업성취 노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룬다(고민경, 2022). 이러한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고, 현장 전문가들은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또래 지지 집단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오혜영, 이윤희, 2018; 한형주, 서은숙 2020). 견주연(2017)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이방인이나 일시적 체류자로 인식하다가 동료로 재발견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유학생들이 합법적인 일원으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문공동체의 제도적, 교육적,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박성원, 신동일, 2014).

한편,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학점 이수제로 가능한 상황에서 보육실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송이, 2020; 박수경, 윤미숙, 2019; 안지혜, 2021; 이지혜, 202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2016. 1)에 따르면,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양성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경험하는 과정이다(보건복지부, 2020). 예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기회를 얻고, 지도교사를 모델링 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한다. 이처럼 보육실습은 보육교사라는 직업과 진로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김양은, 하지영, 2016). 한국 학생의 실습생 경험을 분석한 안지령(2014)은 두려움으로 실습을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성장을 경험하므로 보육실습이 예비교사에게는 진로 탐색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직업훈련교육으로서 보육실습 경험은 외국인 예비 영유아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유학생에게도 보육

교사로서 진로에 대한 적합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실습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유학생의 보육실습에 관한 국내연구가 소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국외 연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i와 Campbell(2022)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강점으로 보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론학습과 실습과정을 연결하여 진로를 인식하도록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실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uttall과 Ortlipp(2012)는 다문화 배경의 예비 영유아 교사들이 보육실습에 대한 평가요건을 충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Harrison과 Ip(2013)은 문화 및 언어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실습 지원을 위해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Felton과 Harrison(2017)은 사회과학계열 유학생들에 대하여 언어적 결함과 문화적 역량을 이유로 실습이 적합하지 않다는 관리자들의 인식이 지배적이며, 실무와 채용이 연계될 때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특히, 실습 매칭 과정에서 유학생의 기회는 더 제한적이었다고 하였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외국인 유학 실습생의 고유한 어려움을 배려하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영유아교육현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양질의 교육자원이 필요하다. 2022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245,912명이며,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다(법무부, 2023). 이주 배경 인구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교원들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22. 2). '2023 다문화 교육정책 학교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학부모 상담을 위해 별도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의 채용을 제안하면서 해당 분야의 자격증과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은 서남권 지역의 78개교에 다문화 출신자인 이중언어 강사 86명을 배치하였으며(서울시교육청, 2015. 7), 2023년 3월부터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영유아들을 영유아교육현장에서 교육하고 보육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국인 영유아교사를 국내에서 양성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학생들이 양질의 교사양성과정을 마친다면 자국이든 한국이든 세계의 어디에서든지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세부목표 4.2는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영유아 발달, 보육,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UNESCO, 2018). 한국에서 양질의 영유아교사로 양성된 유학생들이 자국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목표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질의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보육실습을 질적으로 이수할 학습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이 의미 있는 학습과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저출생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의 보육실습은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육실습과 관련한 경험을 분석하고 그들이 부여하는 보육실습의 의미와 가치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 예비 영유아교사들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 주체(실습지도 교수, 실습 기관 원장 및 지도교사 등)에게도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보육실습의 어려움과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보육실습의 보람과 가치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1) 섭외과정

연구자 A가 지도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흔쾌히 연구 참여의사를 보였으며, 넓은 범위의 연구참여자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보육관련학과 교수자 4명을 만나 섭외과정을 거쳤다. 교수자들과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학업성취도, 보육실습 관련 경험, 실습 행정 문제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보육교사 자격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오인한 사례도 있었고, 자국에서 이미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유학생에게는 한국에서의 보육실습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 실습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하였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보육실습은 그다지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낮은 기대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육실습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과 심층 면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2) 연구참여자의 배경

연구참여자는 국내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였거나 자원봉사를 경험한 외국인 여성 유학생 6명이다. 연구자 A가 보육실습 수업과 실습지도를 했던 유학생이 1차로 선정되었고, 이들로부터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하였다. 연구목적과 취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유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한국어능력[1]은 5~6급으로 발음, 어휘 및 어순 등에 다소 오류가 있으나 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들의 배경은 표 1과 같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1급~6급까지 6단계 등급이며, 6급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대화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문어체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는 다소 미숙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배경

구분	국적	체류기간 (지역)	전공			실습연령 (지역)	면담시점 (취득자격)	한국어 능력
				한국	자국			
A	중국	6년 8개월 (서울)	학부	영유아보육	자원 관리	만 3세 (서울)	보육교사 (2급)	5급
			대학원	유아교육 석사과정				
B	중국	4년 6개월 (서울)	학부	영유아보육	유아 교육	만 1세 (서울)	보육교사 (2급)	6급
			대학원	유아교육 석사과정				
C	중국	4년 2개월 (대전)	학부	유아교육(교환학생)	유아 교육	실습 못함, 자원봉사 함 (대전)	없음	5급
			대학원	유아교육 석사과정				
D	캄보디아	6년 2개월 (서울)	학부	영유아보육	한국어	만 1세 (서울)	보육교사 (2급)	5급
			대학원	영유아보육 석사				
E	캄보디아	4년 1개월 (서울)	학부	영유아보육	유아 교육	만 3세 (서울)	보육교사 (2급)	5급
			대학원	영유아보육 석사과정				
F	중국	8년 1개월 (서울)	학부	영유아보육	토목 공학	만 2세 (서울)	보육교사 (2급)	6급
			대학원	영유아보육 석사 특수보육 석사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초점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이루어졌다. 집단의 동질성을 위해 같은 문화권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3명 단위로 실시했으며, 추가 질문, 정확한 이해와 확인이 필요할 때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보육실습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선정에 한계가 있어 자료수집 과정은 1년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ZOOM)과 대면(연구실 면담)으로 병행했다. 면담 시간은 1회당 2시간 이상이었고, 면담 질문목록을 토대로 연구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가변성을 허용하며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해주었고, 면담 내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면담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 대학원 생활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예비교사들의 실습, 유아교육과 유학생들의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추출되었다. 인구학적 배경, 유학생활의 양상, 전공 선택의 배경, 보육실습 경험, 지원요구 및 향후 계획 등으로 이루어진 면담 질문내용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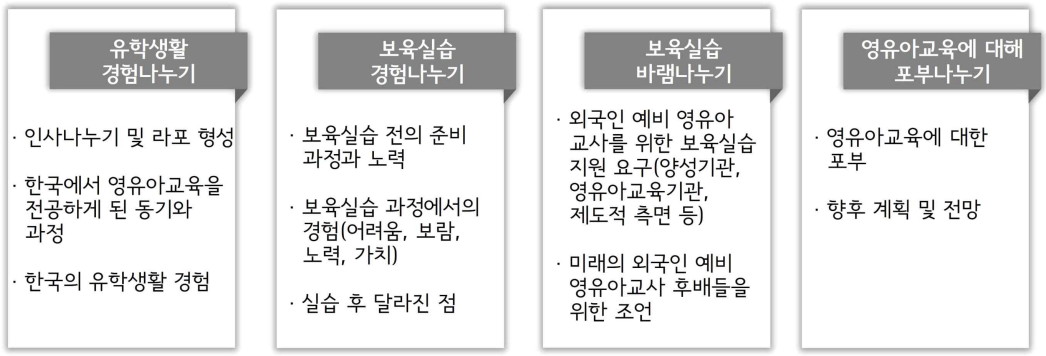

그림 1. FGI 면담의 흐름과 질문목록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을 녹음된 그대로 전사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발음, 어휘 및 오류 등은 수정하지 않고 인비보(In vivo)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그 밖에 수집한 자료, 떠오르는 생각과 의문을 메모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추가 내용을 표기하고 다음 자료수집에 반영하는 순환작업을 반복하며 면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하였다. 자료는 김영천(2012)이 제시한'전사-코딩-주제 생성'의 3단계로 분석했다. 반복하며 읽으면서 내용을 범주화하기, 공통 주제 유목화하기, 유사 개념으로 재분류하기 등으로 예비범주 목록을 생성하였다(Bogdan & Biklen, 2006). 최종 범주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 1인에게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분석과정 절차는 아래의 그림 2에 제시하였고, 자료 분석의 범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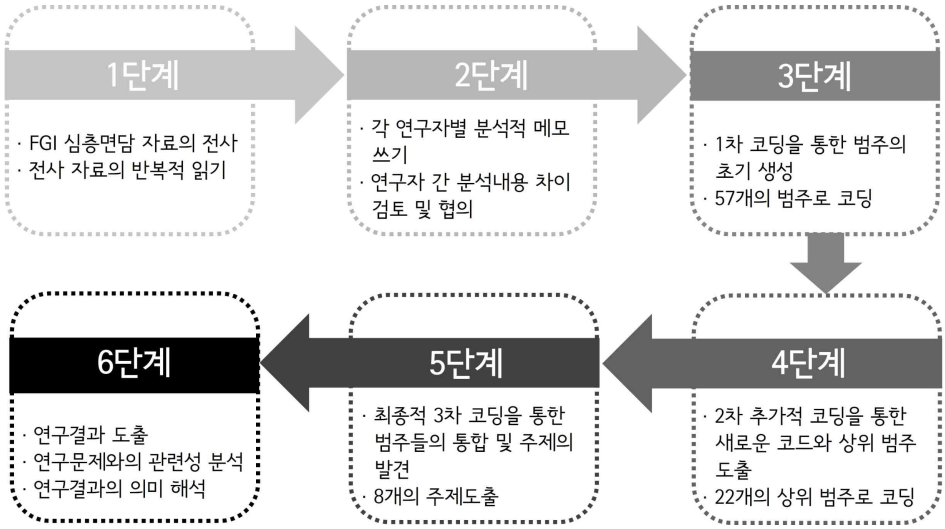

그림 2. 분석과정의 절차

표 2. 자료 분석의 범주

1차 범주	2차 범주	최종범주	
실습 기관 선정에 대한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느낌	외국인은 보육실습 시작 전부터 더 어렵다.	외국인 유학생의 보육 실습의 어려움과 요구
공평한 기회를 원함			
경험해 보지 못한 실습 현장에 대한 두려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습은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선배의 이야기			
건강한 체력관리로 실습을 준비	보육실습 가기 전 준비		
소통을 위한 말하기 연습			
실습일지 및 계획안, 서류 작성법 복습			
영유아의 표현언어를 파악하고자 주의를 기울임	문화적 참조의 어려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도 통역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대중문화를 이해하지 못함			
어눌한 발음으로 유아들에게 미안함	한국어 사용의 한계로 유아 지원에 대한 어려움		
유아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놀이 지원이 어려움			
실습일지와 계획안 분량이 많은 유아반은 기피	영아반에서 실습 희망		
실습일지 작성은 큰 스트레스	언어장벽으로 인한 이중고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벽에 부딪치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습일지와 계획안			
서류작업은 실습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일			
실습은 필요조건이지만 서류는 충분조건			
영유아 교육 현장을 미리 알지 못한 아쉬움	현장 사전경험의 필요성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실습 지원을 바라다.	
실습반의 연령을 미리 알지 못한 아쉬움	외국인을 위한 1:1 맞춤 지도 희망		
실습일지와 계획안 첨삭지도 멘토 필요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실습일지 사례 및 샘플 제공			
언어이해력이 부족한 유학생을 위한 맞춤 지도 필요			
지도교사의 수업 활동 제안으로 시간 절약 원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모의수업 희망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교구 제작 희망			

표 2. 계속

1차 범주	2차 범주	최종범주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의 보람을 느낌	영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는 소명의 시작	한국에서 교사의 정체성을 찾다.	외국인 유학생의 보육 실습의 보람과 가치
나를 교사로 인정해주는 영유아의 태도			
와닿지 않았던 이론 수업과는 달랐던 실습	실천적 지식으로 이론과 실제를 통합	한국 영유아교육의 바람직한 실제를 배우다.	
교과서에서 배운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확인			
50%로 인지했던 놀이중심을 100%로 경험			
각 교과목이 하나로 통합되어 연결됨			
계획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존중하는 활동 경험		
영유아의 돌발행동			
창의력과 상상력이 많은 영유아			
좌절이었지만 이게 놀이 중심	놀이 중심의 실제에 대한 자신감		
영유아 교육의 선진국임을 확인	영유아 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배움		
닮고 싶은 한국 교사들의 모습			
자국과 비교되는 아동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한국의 아동관		
자국의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 필요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 지원에 대한 어려움	자신의 한계를 경험	실습하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노력을 다짐하다.	
회피한 교과목에 대한 후회			
건강과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부족함을 위한 노력		
실습을 경험하지 못해 분노를 느낌	실습은 예비교사의 권리	자국의 영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꿈을 꾸다.	
실습은 필수조건			
교육봉사라도 현장 경험은 반드시 필요	사전현장 체험의 필요성		
자국에서도 필요한 한국의 자격증	한국 실무경험은 자국의 영유아교육을 위한 발전의 길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열망			
실습은 연단의 과정	실습으로 자신감과 소명감을 찾음		

Ⅲ. 연구결과

1. 외국인 예비 영유아교사의 보육실습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

1) 외국인은 보육실습 시작 전부터 더 어렵다.

보육실습기관 섭외는 대학의 실습 행정지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실습기관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은 한국 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난관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며 실습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대학의 실습 행정에 대한 토로가 있었고, 실습기관의 질적 수준은 고려해보지도 못하고 간신히 기관선정에만 급급했던 아쉬움도 표현하였다. 또한 기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습생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을 경험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 실습기관 선정 지원은 너무도 간절한 것이었다.

> 다른 학교는 실습을 안 한 곳도 있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돼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화가 나요.[2)]
> (2021. 6. 5. 유학생 B, 면담)

>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에서 외국인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다고 했어요. 실습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 전부터 어린이집을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 (2021. 6. 5. 유학생 A, 면담)

> 친구들이 직접 (실습 어린이집을) 구해야 했어요. 그때 가정어린이집 갔어요. 친구 교회 목사님이 아는 기독교인 원장님 있어서 연결해 줬어요. 만약에 제 친구 목사님이 연결해 주지 못하면 실습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스스로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받아주시기가 정말 정말 어렵다고 했어요.
> (2023. 3. 21. 유학생 F, 면담)

실습기관을 구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습을 앞둔 유학생들은 긴장과 공포를 느꼈다. 체력관리를 해야 했고, 코로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적었다는 생각으로 소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실습을 대비하여 말하는 연습을 하고, 일지나 서류 작성법도 공부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 실습은 선배들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일지 쓰는 거 어렵다 해서 이런 거 물어보고 공부하고 갔어요. (중략) 힘들다고 해서 체력 되게, 몸이 약하지 않게 그리고 더 강하게 지켰어요. 체력 소진되지 않게 운동하면서 노력했어요. 또 코로나여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기숙사에서 수업 혼자 듣고, 아예 혼자서 지내요. 사람들과 막상 실습 나가려고 하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게 어려워요. 사람들과

2) 인용문은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그대로 작성되어 내용 중에 문법상 맞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소통하지 못해 한국어를 더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말 못 할까 봐 혼자서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2022. 12. 7. 유학생 E, 면담)

2)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도 통역이 필요하다.

영유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그리기, 만들기 등 놀이로 표현한다. 유아들은 실습 중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대중매체의 캐릭터나 곤충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유학생들은 유아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놀이지원을 못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유아들의 세계를 이해해보려고 다른 교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유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영유아와 소통할 때 한국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은 말을 잘해요. 특히 활발하게 말하는 친구는 되게 어려워요. 약간 뭔가 피카추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게 캐릭터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캐릭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또 캐릭터 뭔지 모르는데 그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중략)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말하는 것 무엇이냐고, 그 선생님이 검색해줘서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다음에는 유아들이 물어볼 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일단 만약에 애들이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모르는 얘기 나오면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 이상한 아파트? 뭐지? 여자애들은 '시크릿 쥬쥬~ 캐치 티니핑!' 애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검색해보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서 의사소통을 잘하려고 했어요.

(2022. 12. 7. 유학생 D, 면담)

아이들이 곤충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곤충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곤충의 이름을 안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름을 외웠어요. 아이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게.

(2021. 5. 21. 유학생 F, 면담)

아이들의 말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말에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2022. 12. 7. 유학생 E, 면담)

김성원(2019)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서툰 한국어 사용의 한계로 영아반 담임을 주로 선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신의 부정확한 발음 문제와 혹시라도 유아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영아반에서 실습하기를 원했다. 영아들은 자신들의 언어 수준과 비슷하고 감정 표현이나 몸짓 언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가늠했기 때문이다.

제가 만 3세 반에서 실습했는데 아이들의 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놀이 중심이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흥미에 맞게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힘들어요.

(2022. 12. 7. 유학생 E, 면담)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아는 괜찮은데 만 3세 정도 되면 애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말이 이상해요.”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2021. 5. 21. 유학생 F, 면담)

유아들은 말을 잘해요. 영아들의 말은 저희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손짓, 발짓하면 알아들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저는 실습을 영아반에서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에서 보조교사하고 있지만 유아들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외국인은 영아반에서 실습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2022. 12. 7. 유학생 D, 면담)

3)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벽에 부딪치다.

보육실무를 익히는 보육실습은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해야 하므로 문서작성의 비중이 크다. 실습일지와 영유아 관찰기록을 매일 작성하고, 놀이 활동 실습을 위한 계획안 작성과 결재는 실습생들에게 어려운 과업이다(이유미, 2011). 회화가 아닌 전공 용어로 문서 양식에 적합한 글쓰기를 해야 하므로 유학생들은 서류 작성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고 했다. 보육실습의 애환에 더하여 유학생이 겪는 두려움의 뿌리는 언어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언어역량이 중요한 실습현장에서 비원어민으로서의 어려움은 단시간에 극복하기 힘든 문제였다.

실습했을 때 일지 빼고 다 좋았어요. 매일 일지 쓰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썼으면 좋겠어요. 일지 쓰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계획안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획안대로 수업이 되지 않아요. 보육실습 경험은 너무 좋은데 일지는 줄여줬음 좋겠어요.

(2021. 5. 21. 유학생 A, 면담)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획서? 지도 선생님이 계획안 보시고 이거 다시 해와라. 이렇게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교수님한테 울면서 전화해서 “제가 어떻게 더 못하겠어요. 너무 너무 어려워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몇 번 해봐라 했는데 진짜 더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몰랐어요. (중략) 그때 캄보디아로 가고 싶었어요.

(2022. 12. 7. 유학생 E, 면담)

4)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실습 지원을 바라다.

일반적으로 사전오리엔테이션은 실습생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습업무 담당 교사(혹은 어린이집 원장)로부터 안내 지침을 전달받는 간담회 형태로 이루어진다. 유학생들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전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유학생들은 교육봉사와 같이 일과

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형태를 원했고, 실습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반의 특성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싶어 했다.

> 만약에 보육실습 과목 강의 시작할 때 유학생이 실습 나갈 때 몇 세 반에 들어갈 건지, 그 반 연령에 대한 발달? 보육실습 공부할 때는(보육실습 강의) 몇 세 반인지 몰라서 그냥 모든 연령 다 공부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우리한테는 약간 촉박해요. 다 공부해야 하고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거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 (2022. 12. 7. 유학생 D, 면담)

> 보육실습을 하고 나서 교봉(교육봉사)을 갔어요. 4학년 2학기 때 교봉 해야 하는데 제가 수강 신청을 못 해서 실습 갔다와서 교봉했는데, 보육실습 가기 전에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유학생은 실습 가기 전에 어린이집에 자원봉사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
> (2021. 5. 21. 유학생 F, 면담)

> 일지 쓸 때 문법이나 오타 같은 거 많잖아요. 그대로 어린이집 선생님께 제출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멘토링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
> (2021. 5. 21. 유학생 B, 면담)

> 솔직히 실습 나갈 때 우리는 몰라요. 그 일지~ 일지 어떻게 쓰는지 한국인 친구도 모르는데 우리는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조금 뭔가 배려해주시고 아니면은 약간 사례 있잖아요. 그거 유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약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 (2022. 12. 7. 유학생 D, 면담)

이처럼 보육실습에 대한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실습일지 샘플과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의 맞춤법, 어휘 등을 사전에 첨삭지도를 받는 지원을 원했다.

2. 외국인 유학생 보육실습의 보람과 가치

1) 한국에서 교사의 정체성을 찾다.

유학생들은 실습 기간에 영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자신의 관심으로 영유아가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며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었다는 보람을 느꼈다. 보육실습을 통해서 영유아에게 진정한 교사로 인식되었다는 기쁨은 실습의 고단함을 사라지게 했다. 이는 유병예와 양성은(2013)의 연구에서 실습이 교사 자질과 직업인으로서 영유아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보람된 일이었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 실습,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와서 안아주면 모든 어려움이 싹 다 날아갔어요.
>
> (2021. 6. 11. 유학생 F, 면담)

그 어린이집에는 중국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국 아이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고, 선생님과 상호작용도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옆에서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줬어요. 제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저한테 대답해요. 저랑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저를 좋아했어요. 되게 뿌듯해요. 되게. 그때는 제가 꼭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은 힘이지만 어떤 아이의 변화가 나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2021. 6. 11. 유학생 C, 면담)

2) 한국 영유아교육의 바람직한 실제를 배우다.

유학생들은 이론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와닿지 않았으나 보육실습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감흥을 느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좁히는 경험이 되었고 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며, 모호했던 이론적 지식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다.

수업 때 배웠던 애들의 발달 이론 잘 이해못하고, 그리고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실습 갈 때 애들을 보면서 1세 반에 발달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1세 언어 발달하는 이 정도 보면 진짜 책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실습이 끝나고 애들이 창의적 되게! 와~

(2022. 12. 22. 유학생 D, 면담)

강의실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수업 때 동작, 과학, 수학, 언어, 미술 따로 따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실 수업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80% 이해했다면 우리는 40%, 50% 정도밖에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실습 가니까 따로 따로 배운 과목들이 다 연결이 되었어요. 아? 저게 동작 때 배운 거구나. 저건 과학 때 배운 거구나. 그래서 꼭 실습이 필요해요.

(2021. 6. 11. 유학생 F, 면담)

모의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유아의 유능성과 놀이 중심 교육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모의수업 과정에서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여 계획을 바꾸어가며 영유아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보육실습은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경험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우산에 대해 주제로 정했는데 원래 빗소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애들이 빗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우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도입을 버리고 그냥 애들이랑 약간 처음에 당황했는데 계획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 몰라!, 그냥 애들이 우산에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뭐야?', 이렇게 그냥 근데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산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산에 대해 하고, 제 계획대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놀이 중심이니까 그냥 애들의 놀이에 따라 그러는 거 맞아요. 수업 끝나고 도입을 잘 못 했었다고 선생님한테 너무 아쉽다고 말했는데, '선생님 잘 하셨다!'고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거는 되게 놀이 중심이다고요.

(2022. 12. 22. 유학생 D, 면담)

제가 만든 교구에 유아들이 관심 있으면 가서 계획안대로 진행하고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제가 계획한 대로 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놀았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상상력이 많고, 그리고 다양하게 노는구나! 이게 놀이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대학교에서 이론 관련으로만 그리고 조금 모의수업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실제 나가보니까 놀이 중심이 어떤 건지 정말 100%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50%도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놀이 중심이 어떤 건지 정말 이해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2022. 12. 22. 유학생 E, 면담)

유학생들에게 한국은 영유아교육이 발전된 나라였다. 특히, 개별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국 교사들의 모습을 닮고 싶다는 바램과 자국의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저런 선생님처럼 진짜 아이한테 친절하게, 사고 치는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도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이런 모습을 못 봤어요. (중략) 저런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21. 6. 11. 유학생 B, 면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 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화나면 때려요.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이유예요.

(2022. 12. 22. 유학생 D, 면담)

3) 실습하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노력을 다짐하다.

유학생들은 실습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대학에서 관심이 없거나 어려웠던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진행 시 어려움을 느끼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반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만났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까움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지원에 대한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

어떤 아이 하나가 그 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그 아이가 장난을 쳐요. 선생님도 막 때려요. 부모에게 알려줘도 관심도 별로 없어서 원장님도 고민했어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도 변화가 없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1. 6. 11. 유학생 C, 면담)

실습할 때 어린이집에서 동작할 때 어려웠어요. 동작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동 동작 수업이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친구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난 안 듣겠다 하고 안 들었어요. 졸업

후 캄보디아로 가면 ○○대학교에서 '아동동작' 가르치기로 했어요. (중략) 3학년 때 동작 수업 안 들은 걸 후회해요.

(2022. 12. 22. 유학생 D, 면담)

어린이집에서 간식 시간대나 점심에 그 나온 재료가 어떤 영양이? 내 몸에 어디에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 약간 부족함이 있구나! 지식을 다양하게 쌓아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2. 12. 22. 유학생 E, 면담)

4) 자국의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꿈을 꾸다.

인터뷰 중 한 유학생은 자신에게 보육실습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한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습의 기회는 외국인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자국의 영유아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고 하였다. 실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육봉사와 같은 현장실습이라도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사를 표현하였다.

저 한국에서 실습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자원봉사 못 했으면 진짜 몰랐을 거예요.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유아 교사로 취업하지 않을 거지만 경험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른 거 같아요.

(2021. 6. 11. 유학생 C, 면담)

만약 실습이 어렵다면 교봉(교육봉사)이라도 꼭 해야 해요. 한국에서 취업 안 하는 거 무슨 상관인데요? 여기서 배우고 자기 나라에 가서 하잖아요. 여기서 배우고 다 거기 가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캄보디아 유치원에 계획안도 없어요. 그런데 실습을 못 했다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보고 그냥 그것만 할 수 있는 교봉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2. 12. 22. 유학생 D, 면담)

보육실습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실습은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실제를 경험하고, 와닿지 않던 이론들의 통합적 실현을 체험하며,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족함을 발견하는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가치 있는 경험은 유학생도 한국 학생들처럼 공평하게 양질의 실습받을 권리를 주장하게 하였다. 그들은 보육실습을 통해 영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싶다는 열망과 자신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보육교사로 일하며 더 배우고 싶은 열정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사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유학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면 실습에서 배운 것들을 자국의 영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소명감을 보였다.

지금 중국은 대도시에서 중국, 한국 유치원 국제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곳은 아마 자격증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격증을 받으면 훨씬 좋아요. (중략) 지금 대학원 수업은 너무 어렵지만 나중에 박사까지 하고 싶어요. 대학원에서 박사 선생님들 보면 거의 다 유치원, 어린이집 경험이 많아요. 제가 박사를 하게 되면 진짜 현장에서 연결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서 한국에서 교사를 꼭 해보고 싶어요.
(2021. 6. 11. 유학생 B, 면담)

캄보디아 유치원도 없어요. 한국에서 교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못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유아교육 교수 아직 없어요. 한국 사람이(한국인 선교사) 유아교육을 가르쳐요. 우리가 해야 해요.
(2022. 12. 22. 유학생 D, 면담)

교사를 하는데 좀 자신감이 생긴 거 같아요. 교사도 잘 맞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실습이 너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냈으니까 그래서 다른 일할 때 이거는 실습보다 어렵지 않아.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2022. 12. 22. 유학생 E, 면담)

자국의 영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그들의 사명감은 결의에 찬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마틴루터 킹 목사의 '저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dream)'로 시작하는 명연설을 들었을 때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학생의 대한민국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어려움이 많고, 취득해도 외국인 보육교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외국인의 보육실습을 네 가지로 은유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의 보육실습은 '마라톤'이다. 완주를 꿈꾸는 마라토너는 멀리 보고 뛰어야 한다. 한국 학생과 경쟁하기보다는 유학생의 특성과 역량에 맞게 리듬과 속도를 유지하며 결승점에 이르도록 실습 지도를 해야 한다. 둘째, 이들의 보육실습은 '출국 심사'이다. 까다롭고 복잡해도 꼭 밟아야 하는 절차처럼 한국의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다. 셋째, 이들의 보육실습은 '번데기'이다. 실습 이전과 이후가 번데기와 배추흰나비처럼 큰 변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보육실습은 '못자리 농사'이다. 모판 농사가 농사의 반이라는 말처럼, 유학생들이 양질의 보육실습이라는 못자리에서 잘 성장한다면, 한국이든 자국이든 어디에서든 뿌리내려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유학생들은 믿고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예비 영유아교사들의 보육실습 관련 경험을 분석하여 그들이 부여하는 보육실습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실습지도 교수, 실습 기관 원장 및 지도교사 등에게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시사점 도출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후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예비 영유아교사의 보육실습의 어려움은 보육실습 기관을 구하기,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 어려움은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외국인의 고충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과 요구는 중국 유학생의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배진형과 안정선(2016)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유학생들은 실습 이전과 초기에 자신의 역량과 자원이 거의 없어 막연함과 낯선 실습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Felton과 Harrison(2017)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실습생들은 실습 기관 배치와 지도교사 배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학습공동체의 구성이나 플랫폼 지원 등을 마련하거나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 유학생의 실습 지도가 가능한 거점형 기관을 지정하여 이들의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게 한다면, 이들은 영유아교육현장에 좋은 다문화교육의 자원이 될 것이다.

이상미(2014), 김양은과 하지영(2016)의 연구에서 예비 영유아교사들은 실습 시 서류 작성의 어려움, 적응, 의사소통, 인간관계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강도와 밀도는 모국어가 달랐기에 더욱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Nuttall과 Ortlipp(2012)이 다문화 배경의 예비 영유아교사들이 실습에 대한 평가요건을 충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보육실습생들은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했어도 전공 용어를 넣어 문어체로 세련되게 기술하는 것은 큰 난관이었다고 하였다.

Harrison과 Ip(2013)은 문화 및 언어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실습 지원을 위해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습일지와 실습활동 계획안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는 멘토링이나 간략형의 문서 양식과 샘플을 제공받기 원했다. 언어 이해력이 부족한 유학생의 역량 수준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예비 영유아교사들은 실습 준비 단계에서 좀 더 일찍 실습 현장에서의 일과를 사전에 직접 체험하는 형태의 오리엔테이션을 원했다. 유학생은 실습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보다 이른 시기에 긴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기 원했다. 예를 들면 실습 기관의 일과를 교육봉사와 같은 형식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미(2014)의 연구에서 제안한 예비보육교사들이 영아반 보육실습을 위해 영아반 교육봉사와 같은 것이었다.

둘째, 외국인 예비 영유아교사들은 보육실습 중에 영유아에게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작용과 놀이 중심의 바람직한 실제를 배우는 것에 보육실습의 보람과 가치를 두었다. 아울러 실습하면서 깨닫게 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으며 실습에서 겪는 어려움 극복과 배움의 모든 과정이 자국의 영유아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승화시켰다. 보육실습을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다. 유학생들이 인식한 보육실습의 가치는 한국 예비교사들이 실습을 질높은 교사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은유한 정혜영과 김미진(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보육실습을 하면서 영유아와의 교감에서 오는 즐거움(천혜정, 서영숙, 2010)과 실습 지도교사의 따뜻한 격려와 날카로운 조언이 교사 됨을 성찰하게 되는 기회(좌승화, 오정희, 2016)가 된다

는 선행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이것은 추수진(2019)의 연구에서 실습생이 교사가 되어 어린이집 일과와 운영 방법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수방법을 배우며,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피드백을 통한 자신감 강화를 받는 긍정적 경험이 있다는 것과 같이 유학생들도 유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보육교사가 실습 지도교사의 놀이 지원을 경험한 것이 향후 교사의 역할 수행에 기초가 되므로 양질의 보육실습이 필요하다는 안지혜(2019)의 주장들은 유학생들의 보육실습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다.

현장실습은 실습생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임은정, 김성천, 2010). 보육실습을 통해 유학생들이 유학 후 영유아교사, 교수자 혹은 통역자가 되어 영유아교육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진로의식을 밝혔다. 고민경(2022)과 Allon 등(2008)은 유학생들이 언젠가는 자국으로 '돌아갈 이주자'이지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정체성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유학 중에는 학생의 신분이지만 유학 후 우리 국민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인재도 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유학생은 다문화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Qi & Campbell, 2022),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얼마나 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16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의 3.0%에 해당 한다(계승현, 2022. 5. 25). 이처럼 다문화사회로 향하는 시대에 직면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 자원이 될 수 있다. 김성원(2019)에 따르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교사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학생들이 다문화사회의 교육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육실습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사양성과정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행정안전부, 2020. 10). 통계청(2022. 4)에 따르면 2021년 총인구 유소년 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는 5.1%이었고, 2040년이 되면 9.3%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귀화자와 이민자 2세가 2040년까지 4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통계청, 2023. 2)[3]과 이주 해외인구 유입과 같은 인구변화의 큰 파도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보육의 정책을 설계할 때 외국인 보육교사들의 임용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는 예비교사양성과정에서 유학생들의 학업과 성취를 충실히 관리해야 할 이유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의 해석 시 고려할 제한점이 있다. 첫째, 중국과 캄보디아 단 2개국 6명의 유학생이 참여하여 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의 사례가 포함되지 못하여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7개월~2년 전에 경험했던 실습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여 경험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석사과정 중이거나 석사학위를 마친 상태에서 전문성에 대한 남다른 열망으로 보육실습에 더욱 큰 의미를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출신 국가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사연구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3)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아울러, 본 연구가 향후 다문화 배경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의 보육실습과 관련한 정책 방향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보육교사 자격취득 외국인의 통계 수치가 축적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지역별, 양성기관별(2, 3, 4년제), 전공별로 조사되어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보육실습 매뉴얼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유학생들은 실습 문서의 간소화와 체험형 사전오리엔테이션을 희망했다. 셋째, 양성기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유학생은 문서작성과 간단한 첨삭지도를 해줄 멘토링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자국에 돌아가 영유아교육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실습 문서 작성에 대해서 간략한 양식을 제안하면 더 좋았을 것이고, 한국에 남아 다문화 교사 직무를 익히기 위해서라면 한국어로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문서 실무 역량에 더욱 큰 비중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학생을 위한 보육실습 자원(실습 기관과 실습 지도교사) 개발과 실습지도를 위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견주연 (2017). 지역대학 유아교육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삶의 경험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103-130.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4.103

계승현 (2022. 5. 25). [2022 청소년] 다문화 학생 1년새 8.6% 증가...10명 중 7명 초등생.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34600530?input=kkt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고민경 (2022).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4), 474-488. https://doi.org/10.26863/JKARG.2022.11.28.4.474

교육부 (2022. 2).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066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3년 1월 20일 인출

교육부 (2023. 4. 14).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지차체 목소리 듣는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71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교육통계서비스 (2022). **대학교육통계.**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년 1월 20일 인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2023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유치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김성원 (2019). 다문화 배경을 가진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교직 경험과 지원에 대한 요구: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고려인 여성의 교직준비 및 담임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송이 (2020). 예비보육교사의 실습갈등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267-285.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4.267

김양은, 하지영 (2016).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593-619.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0.593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1: Bicoleur (제2판).** 아카데미프레스.
박성원, 신동일 (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103-158. https://doi.org/10.17318/jae.2014.17.1.003
박수경, 윤미숙 (2019). 커뮤니티 기반 딜레마 컨설팅(Dilemma Consulting)에 참여한 보육실습교사와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경험 탐색. **교육문화연구,** 25(1), 471-489.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471
배진형, 안정선 (2016). 사회복지학전공 유학생의 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H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39-72.
법무부 (2023).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에서 2023년 4월 27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79458#0000 에서 2023년 2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 **2020 개정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과목 표준 교과 개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서울시교육청 (2015. 7).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20031&step1=3&step2=1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안지령 (2014). 예비유아교사들의 보육실습 경험 이야기: 반성적 내러티브를 통하여. **유아교육연구,** 34(2), 165-184. https://doi.org/10.18023/kjece.2014.34.2.008
안지혜 (2019). 예비보육교사의 관점에서 본 놀이의 의미. **영유아교육과정연구,** 9(1), 36-64.
안지혜 (2021).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에서 경험한 실습지도교사와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33-54. https://doi.org/10.36431/JPE.13.1.3
오혜영, 이윤희 (2018). 국내 대학 담당자들이 인식한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과 심리지원 방안.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01-121. https://doi.org/10.21097/ksw.2018.11.13.4.101
유병예, 양성은 (2013). 예비보육교사의 실습 경험에 관한 과정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95-119.
이상미 (2014). 영아반 보육실습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지원요구. **유아교육학논집,** 18(6), 479-501.
이유미 (2011). e-멘토링에 의한 보육실습지도의 가능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혜 (2022).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기초한 보육실습 경험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7(4), 27-58. https://doi.org/10.20437/KOAECE27-4-02
임은정, 김성천 (2010). 교육 실습의 난점과 의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4(1), 259-287.
정혜영, 김미진 (2015). 은유 분석을 통해 본 실습 전 예비유아교사의 실습 전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25-44. https://doi.org/10.14698/jkcce.2015.11.025
좌승화, 오정희 (2016). 예비유아교사들의 보육실습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대집단활동 관찰과 실행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5(1), 87-108.
천혜정, 서영숙 (2010). 영아반 보육실습 체험에 대한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177-199.

추수진 (2019). 보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보람. **교육발전, 39**(2), 337-353. https://doi.org/10.34245/jed.39.2.337

통계청 (2022. 4).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17775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통계청 (2023. 2). **2022년 1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4&act=view&list_no=423832&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keyField=T&keyWord=에서 2023년 4월 20일 인출

한형주, 서은숙 (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응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570-584. https://doi.org/10.5392/JKCA.2020.20.05.570

행정안전부 (2020. 10).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 222만 명, 총인구 대비 4.3%.**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0756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Allon, F., Anderson, K., & Bushell, B. (2008). Mutant mobilities: Backpacker tourism in 'Global' Sydney. *Mobilities*, *3*(1), 73-94. https://doi.org/10.1080/17450100701797323

Bogdan, R. C., & Biklen, S. K. (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Allyn & Bacon, Inc.

Felton, K., & Harrison, G. (2017). Supporting inclusive practicum experien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cross the social sciences: Building industry capacity.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36*(1), 88-101. https://doi.org/10.1080/07294360.2016.1170766

Harrison, G., & Ip, R. (2013). Extending the terrain of inclusive education in the classroom to the field: International students on placement. *Social Work Education*, *32*(2), 230-243. https://doi.org/10.1080/02615479.2012.734804

Nuttall, J., & Ortlipp, M. (2012). Practicum assessment of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0*(1), 47-60. https://doi.org/10.1080/1350293X.2012.650011

Qi, Y., & Campbell, M. (2022). Encouraging diversity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47*(3), 233-240. https://doi.org/10.1177/18369391221104353

UNESCO (201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2017/8: 교육의 책무성, 우리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이지향 옮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원판 2017)

논 문 투 고 : 23.04.28.
수정원고접수 : 23.06.07.
최종게재결정 : 23.06.12.